

● Challenge Zone

Health people

글_ 김연수 기자
사진_ kbs제공

지난 2012년 흑룡의 해에 빛났던 용띠 스타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인물로 차태현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데뷔 17년 만에 처음 도전한 사극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누적 관객 491만 명을 기록했고 KBS 예능프로그램 '박 2일'의 새 멤버로 투입 돼 시청률 상승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았다. 하반기에 시작한 KBS 드라마 '전우치'에서는 1인 2역의 배역을 소화하며 전반적인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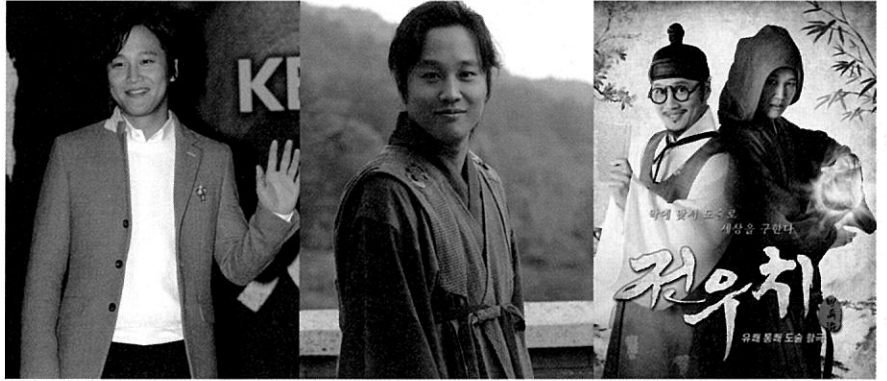
소탈한 매력과 뛰어난 연기력 발전하는 배우 차태현

영화배우, 탤런트, 예능인, 광고 모델 등으로 한시도 쉴 새 없이 열심히 달려온 차태현. 것처럼 특별한 거부 반응 없이 남녀노소 골고루 인기를 얻는 일도 쉽지 않을 터. 편하고 자연스러운 말투와 독특한 유머 감각, 그리고 옆집 오빠, 앞집 아

저씨 같은 소탈한 모습이 차태현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다. 덧붙여 연예계 생활에 임하면서 작은 스캔들도 남기지 않은 그의 건강한 이미지도 한몫 한다고 볼 수 있다.

자타공인 '용산구 1등 아빠'

기혼 차태현이 미혼 차태현 때 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첫사랑과 결혼에 골인, 지금까지 한결같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의 순애보 때문. 게다가 결혼 후 1남 1녀 남매를 둔 아빠로 아들 바



보, 딸 바보를 자처하며 일 외의 모든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의 가정적인 모습이 많은 여성 팬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아내는 저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제가 흔들릴 때 마다 저를 바로 설 수 있게 해준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바로 ‘가족’입니다. 아이들 덕분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래도록 건강하게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KBS ‘남자의 자격_패밀리 합창단’에서 차태현의 아버지, 어머니가 동반 출연 하면서 또 한 번의 화제가 됐다. KBS 음향효과 연출자 출신의 개그맨 뽀치는 아버지, ‘달려라 하니’, ‘영심이’ 등의 인기 만화 주인공 목소리 연기로 유명했던 성우 출신 어머니, 영화 제작자로 활발히 활동하는 친형까지 차태현 가족은 그야말로 끼와 유쾌함이 넘친다.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하지만 그만큼 또 서로를 위하고 존중해 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모범 가정 그 자체였다.

진한 가족애로 공황장애 극복

늘 밝게 웃는 그가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았다는 사실을 TV 토크쇼를 통해 털어 놓았을 때 방송 관계자들도, 시청자들도 깜짝 놀랐다. 언제 봐도 유쾌해 보였던 그 남자에게 그런 심각한 아픔이 있었으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인기가 시들해지고 슬럼프에 빠지면서 힘든 시기를 겪었어

요. 공황장애란 병이 사람을 그리 지치게 하더라고요. 약을 안 들고 다니면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아, 이러다 나 죽겠구나 싶게 만들고 숨을 쉬고 있지만 숨이 멎는 것 같은 고통을 주더라고요. 응급실을 정말 내 집 다니듯 드나들었습니다.”

그의 호탕한 웃음 뒤에 남모르게 속 깊이 쌓아두었던 스트레스의 무게가 상당했던 모양이다. “꾸준한 약물 치료와 상담을 통해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족들의 사랑으로 심신의 안정을 찾은 것이 가장 큰 특효약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인 유대감을 만들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으려 많이 노력했습니다.”

대중들에게 많은 작품을 통해 건강한 웃음과 삶의 에너지를, 때론 눈물과 진한 감동을 준 천상배우 차태현. 언제까지나 관객이 원하는 역을 소화해내고 관객과 소통하는 연기로 남고 싶다는 그는 자신의 롤모델로 배우 안성기를 꼽았다. 연기도 인간적인 면도 모두 훌륭해 평소 존경하는 선배라고. 그리고 조금 더 연륜이 쌓이면 김윤석, 송강호가 보여줬던 캐릭터에도 도전해보고 싶고 드라마 ‘최고의 사랑’처럼 가슴 애틀한 달달한 로맨스 극도 소화하고 싶다고 한다. “긴 생명력을 가진 배우로 살기 위한 변화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 스타일에 맞는 ‘차태현식’ 스타일로 만들어야겠죠. 의미 있는 도전에는 언제나 주저함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